

LG전자, 세계 무대에서 접근성 뽐내... 고객경험 혁신 이끈다

‘씨선 앳’ 글로벌 콘퍼런스 참가
컴포트 키트 등 다양한 솔루션 선보여
“접근성 강화 활동 확대해 나갈 것”

LG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접근성 콘퍼런스에서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LG전자는 미국 애너하임에서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접근성 콘퍼런스 ‘씨선 앳(CSUN AT) 2025’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씨선 앳’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CSUN)이 주최하는 보조공학기술 행사로, 접근성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힌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도 접근성 분야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매년 참가하고 있다. 글로벌 생활가전 기업 가운데 ‘씨선 앳’에 참가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단독 전시



바르셀로나에서 지난달 4일(현지시간) 열린 ‘ISE 2025’에 2세대 키오스크가 전시돼 있다.

부스를 마련하고 장애인이나 시니어 고객이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했다. 높낮이 조절 기능과 촉각 키패드를 적용한 키오스크 신제품이 대표적이다. 신제품은 휠체어 사용자나 키가 작은 사람도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눈높이에 맞춰 키오스크 화면부의 높낮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촉각 키

패드 액세서리도 추가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도 향상했다.

이 외에도 생활가전, TV 등에 액세서리를 부착하거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만으로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가전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돕는 ‘LG 컴포트 키트’, 음성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등 쉬운 사



LG전자가 ‘CSUN AT 2025’에서 ‘LG 컴포트 키트’를 소개했다.

/LG전자

용을 지원하는 ‘LG 씽큐 온’, 올레드 TV에 탑재된 ‘음성메뉴 읽어주기’, ‘보청기·스피커 동시듣기’ 등도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행사 기간 중 LG전자는 기업 및 학계 전문가, 장애인단체를 초청해 AI홈, 컴포트 키트를 포함한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도 진행한다. 고객이 불편을 겪는 지점(페인 포인트)을

해소해 보다 편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전시 참가는 컴포트 키트 등을 선보이며 접근성 개선에 진심을 다하는 LG전자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외부 고객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접근성 강화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석화업계, ‘전력 리스크’ 우려 확산 스마트 관리 시스템 필요성 대두

정전 발생 시 대규모 손실
“전력 공급 안정화 전략 필수”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이 정전 사태 이후 2주 만에 정상화됐지만, 전력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연속 공정이 필수적인 석유화학 공장은 정전 발생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에서는 자가 발전과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일부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비상 발전기를 도입해 정전에 대비하고 있으나, 대형 공장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공장은 전력 소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상 발전기만으로 전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하면 주요 생산 라인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했다. 롯데케미칼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이번 정전으로 NCC,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며 “이는 전체 매출의 17.83%에 해당하는 생산 라인”이라고 밝혔다. LG화학도 공시를 통해 “정전으로 인해 매출의 9.38%를 차지하는 생산라인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외부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비축된 재고를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했고, 일부 보수 비용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대산공장 나프타분해시설(NCC)은 각각 연산 130만 톤, 110만 톤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석유화학 공장의 정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LG화학 여수공장에서 변압기 문제로 인해 벤젠, 톨루엔 등의 주요 제품 생산라인이 중

단된 바 있다. 2011년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16분간 정전이 발생해 SK에너지, SK케미칼 등 120여개 업체가 공장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LG화학과 롯데케미칼(당시 롯데대산유화)은 2006년 변전소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을 겪은 뒤 한국전력을 상대로 10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도 있다.

이후 기업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 공급 시스템 개선 ▲비상 전력 공급 체계 구축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정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전력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비상 발전 설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자가 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풍력발전 공장 세운다

지멘스가메사 EWA 체결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지멘스가메사의 14메가와트(MW) 해상풍력발전기 제작을 위한 공장 구축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2일 지멘스가메사와 ‘창원 풍력발전 신규 공장 구축을 위한 사전업무착수협약(EW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창원공장 내 14MW 해상풍력발전기 제조공장 및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지멘스가메사는 기술 이전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내 해상풍력 최다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멘스가메사는 독일 지멘스에너지의 풍력 사업 부문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28GW의 공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손승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 BG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해상풍



지난 11일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열린 지멘스가메사와 사전업무착수협약(EWA) 체결식에서 지멘스가메사 나셀 생산총괄 펠커머던 박사(왼쪽)와 두산에너지빌리티 파워서비스 영업총괄 윤요한 전무가 서명하는 모습.

/두산에너지빌리티

력 생태계 활성화와 무탄소 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해상풍력 입찰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야월해상풍력(104MW)의 우선계약협상자로, 지멘스가메사는 ▲안마1해상풍력(224MW) ▲안마2해상풍력(308MW)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750MW)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지멘스가메사는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공장에서 해상풍력발전기 나셀을 조립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현대제철, LPG·암모니아선용 고부가가치 후판 생산

HD현대그룹 협력... 충격 저항성 강화

현대제철이 HD현대그룹과 협력해 극저온 충격 저항성과 용접성을 강화한 신규 후판을 초도 생산한다.

현대제철은 지난 11일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함께 LPG·암모니아 운반선용 신규 후판 강제 초도 생산 기념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LPG·암모니아 운반선은 액화 물질

저장을 위해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일반 강재를 적용하면 충격 인성이 낮아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신규 후판 개발에 매진했다.

신규 후판은 압연 온도 제어로 강재 내부 조직을 변화시켜 강도와 인성, 용접성을 향상시키는 TMCP2 기술을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합금 함유량이 많아 용접성

이 떨어졌던 기존 후판과는 다르게 합금 성분을 낮추면서도 저온 충격 인성과 용접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후판을 효율적으로 용접할 수 있는 대입열 용접 기술도 함께 확보하면서 선박 건조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은 이달 말까지 신규 강재의 선급 인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양산·공급 체계를 갖춰 판매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 QLED TV, SGS ‘무카드뮴’ 인증 (無)

유해물질 제한지침 충족... 안전성 확인

삼성전자 QLED TV가 스위스 소재 글로벌 인증 기관인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로부터 ‘무(無)카드뮴’ 린텀닷 기술 우수성을 인증받았다.

삼성전자는 QLED TV에 들어가는 ‘린텀닷 필름’에 대해 카드뮴 미검출 및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기준 준수 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SGS는 전자 제품, 식품, 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엄격한 품질 및 안전 기준

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시험·인증 기관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을 충족해 시장 환경의 안전성도 인정받았다.

손태용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QLED TV는 뛰어난 화질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